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6호 [루게 제2239호]

주제 102  
(2013). 8  
31  
토요일  
음력 7. 25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

선군절에 즈음하여 당보 《로동신문》, 군보 《조선인민군》에 준담화

주제 102 (2013)년 8월 25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정과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에 넘쳐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3돐을 맞이합니다.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선군절은 선군절과 함께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새긴 력사의 날입니다. 뜻깊은 이 날이 있어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며 승리하여온 우리의 성스러운 선군혁명력사와 전통이 즐기차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령도하여오신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혁명의 길을 개척하시어 선군의 새 력사를 창조하고 선군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일찌기 무장한 적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 싸워야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히시고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무력건설을 혁명의 근본문제로 보시고 무장대오의 조직과 강화발전에 선차적힘을 넣으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주력으로 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총대에 의거하여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으로써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에 충실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력사의 준엄한 시련과 풍파를 헤치며 우리 혁명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령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의 계승과 선군령도의 새 출발을 선언한 력사적사변이었습니다.

선군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었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걸으시면서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고 선군의 위

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셨습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을 선군혁명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보신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수령의 군대,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키워 우리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준엄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발휘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혁명정신, 혁명적인정신으로 내세우고 전군, 전민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시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양양과 전변이 일어나게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령도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선군혁명사상과 원칙을 구현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으며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관리체계를 세우고 모든 국가사업이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철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친어버이사랑으로 수놓아진 숭고한 믿음과 사랑의 령도사입니다.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력사의 온갖 풍파를 뚫고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으며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초강도강행군길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류가 알지 못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선군은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드팀없는 혁명신조였으며 조국청사에 빛나는 승리와 불멸의 업적을 수놓으신 위대한 혁명실천이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인미답의 선군령도와정에 선군혁명사상을 정립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시으로써 자주위업수행에서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 백성의 기치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선군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며 혁명군대를 핵심력량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을 밀고나갈

데 대한 사상입니다.

선군혁명사상은 혁명의 총대에 의하여 혁명위업의 승리가 결정된다는 주체의 혁명원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혁명승리를 위한 관건적문제들에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해답을 줍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은 혁명의 총대, 혁명군대를 강화하고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며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데 대한 혁명리론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군사를 중시하고 군건설에 선차적힘을 넣어 군대를 당과 수령의 군대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선군혁명사상의 가장 중요한 요구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과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혁명의 총대를 강화하고 튼튼히 틀어쥐어야 합니다. 세계사회주의운동력사는 혁명의 총대가 약하거나 흔들리면 인민대중의 운명도, 사회주의도 지켜낼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혁명군대의 주도적역할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떠밀어나가야 한다는것은 선군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새로운 혁명리론입니다.

혁명은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사이의 누가 누구를 하는 판가리싸움이며 따라서 혁명의 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운명이 좌우되게 됩니다.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력량을 이루고있는 사회적집단들가운데 혁명성과 조직성, 규률성과 전투력이 제일 강한 집단은 수령의 령도를 받는 혁명군대입니다. 혁명군대는 그가 지니고있는 혁명사상과 높은 정신력, 혁명적기질로 하여 사회전반을 선도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추동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군대가 앞장에 서고 군대와 전체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혁명군대의 혁명적정신과 기질로 투쟁할 때 그 위력은 비할바없이 큰것입니다.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새로운 길,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은 선군정치가 가장 위력한 정치이며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된다는

정치리론을 새롭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상과 리념은 정치를 통하여 실현되며 정치는 인민대중의 운명,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정치는 바로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선군정치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천명하시고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사회주의정치방식입니다. 선군정치는 선군사상의 원리와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자주적인 정치방식입니다.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됨으로써 인류정치사와 사회주의정치사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사회주의리념과 원칙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만능의 보검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은 투철한 반제자주적립장과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정신으로 일관되고 철의 신념과 의지에 기초한 혁명적인 사상리론입니다.

선군이라는 새로운 시대어자체가 장기간에 걸친 제국주의렬강과의 첨예한 대결상태에서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모든것을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신 김정일동지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 담대한 배짱에 의해 생겨난것입니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인 선군혁명사상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총대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자주성, 사회주의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키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구현해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심화발전된 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완벽하게,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사상과 리론을 정립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시으로써 우리 혁명의 사상리론적보물고가 더욱 풍부해지고 주체사상의 견인력과 생활력이 비상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2 면 으 로 계 속 )

#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

( 1 면 에서 계속 )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며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입니다.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에 의하여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되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담보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 놓으시였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마련해주신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참된 삶과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가로막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는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모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지난 세기 90년대는 우리 혁명에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적인민, 자주적근위병으로 승리자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단연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것은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와 승리의 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시였습니다.

혁명승리의 가장 중요한 담보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다지는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신 근본원칙은 우리 당을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는 것이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당 김일성주의화를 당건설의 총적목표로 규정하시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고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튼튼한 대중적, 군사적지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항도적력량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일심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도록 하시여 선군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져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군사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는 선봉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로 자라났습니다.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가 힘있게 추진되어 우리 자체의 힘과 기술로 그 어떤 현대적무장장비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나고 우리 나라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되어 백두산강국의 위용을 당당히 떨칠수 있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가 펼쳐지고 온 나라에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열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지식경제시대가 열리였으며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선군문화의 본보기들이 수없이 창조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군시대에 창조한 귀중한 재부와 창조물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시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6.15통일시대를 열어 놓으시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밑천을 마련하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시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 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총직하게 계승하고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선군혁명사상은 우리 혁명의 위대한 지도적지침이며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은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며 장군님의 유훈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하며 그것을 혁명

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철저히 구현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총대중시, 군사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져야 합니다.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역세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당의 령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인민군대의 위력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인민군대의 총직방향은 오직 하나 우리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가는것입니다. 우리의 총대는 영원히 당과 그 위업을 굳건히 담보하는 억척의 지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인민군장병들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오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오직 당과 수령만을 알고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할 하나의 사상, 하나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워야 합니다. 인민군군인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목숨은 버려도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당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합니다.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군인들을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천능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용사로 준비시키며 부대안에 강철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면모를 훌륭히 갖추어야 합니다.

군인들이 군무생활을 잘할수 있게 초소와 병영을 고향집처럼 잘 꾸리도록 하며 군인들의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보위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선과 주요전구마다에서 돌과구를 열어제끼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만족을 모르고 언제나 앞장에 서야 합니다.

국방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나라를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도록 하는데 힘을 집중하여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로동적위군은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전투력을 더욱 높이며 일단 유사시에 자기 도, 자기 군, 자기 향토를 튼튼히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라격방향인 농업과 경공업전선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인민들이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 힘을 집중하여 이미 마련된 자립적토대가 은을 내게 하고 현대화,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큰 힘을 넣으며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쌍기둥으로 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현대화, CNC화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경제구조를 완비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며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념원이 현실로 꽃피게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선군혁명의 전위조직이며 당의 사상과 령도는 당조직들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령도자의 사상과 령도를 총직하게 받들며 모든 사업을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켜야 합니다.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며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기본열쇠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것입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장군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고 빛내이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대중속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의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과 투쟁기풍을 체질화하며 김정일에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군민협동작전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위력한 투쟁방식입니다. 인민군대지휘관들과 사회의 지도일군들은 군민협동작전을 위한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군민의 정신력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자기 단위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숭고한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며 침략과 전쟁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선군혁명사상과 위업은 필승불패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혁명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현명한 령도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무적필승의 인민군대가 있는 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것입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 청년절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과 함께 《해불컵》 1급남자축구 결승경기를 관람하시였다

은 나라에 청년절을 맞이 한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속에 28일 김일성경기장에서는 《해불컵》 1급남자 축구 결승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해불컵》 1급남자 축구 결승경기는 조선인민군 4.25팀과 로농적위군 선봉팀 사이에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오르고 경기장은 은 나라가 청년절을 뜻깊게 경축하도록 해주시고 청년들에게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기는 선봉팀의 먼저차기로 시작되였다.

조별리그전과 준결승경기에서 맞닥뜨린 팀들을 모두 물리치고 결승전에 진출한 량팀 선수들의 승리의 심심은 드높았고 기세 또한 충천하였다.

결승경기는 주제적인 경기전법으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한 량팀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하여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속에 진행되였다.

량팀 선수들이 경기시작부터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적극적인 공격전을 벌리였지만 전반전은 득점없이 끝났다.



함에 의한 속공으로 후반전 주시시간에 또다시 잃은 점수를 회복하였다.

치열하게 벌어진 경기는 2:2로 비긴 상태에서 연장전에 들어갔다.

량팀 선수들이 자기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득점기회를 마련하였지만 더 득점은 나지 않았다.

경기는 결국 11m차기로 승부를 가르게 되였다.

전체 관람자들이 숨을 죽이고 손에 땀을 쥐게 한 11m차기에서는 량팀에서 각각 5명씩 찾지만 승부가 나지 않아 계속 차넣기를 한 결과 경기에서는 8:7로 선봉팀이 이겼다.

관람자들은 높은 축구기술과 정신력,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과시한 두 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수도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후반전에 들어와 서로 공격전술과 방어대형을 변화시키며 경기속도를 높였다.

후반전 1분경 선봉팀의 28번선수가 강하게 찬 공을 4.25팀의 문지기가 가까스로 쳐냈지만 문전으로 돌입하던 7번선수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시 차넣어 첫 득점을 하였다.

채지있는 런락과 속공으로 런속 끝문

을 위협하는 선봉팀의 전술에 대처하여 4.25팀 선수들이 팀의 전술속체적특성을 잘 살리며 총공격으로 나왔다.

맹공격을 들이대던 4.25팀에서 20분경 11번선수가 머리받기로 동점골을 기록하였다.

멋있는 득점장면이 펼쳐질 때마다 관람자들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며 응원에

더욱 열을 올렸다.

중간지대에서 공작양를 높이며 측면 돌파에 의한 문전결속의 기회들을 얻어 마련하던 선봉팀의 15번선수가 30분경 문전 17m 지점에서 멋진 차넣기로 또다시 한점을 올려 관람자들을 격동시켰다.

4.25팀은 신심을 잃지 않고 선봉팀의 공격을 제압하면서 종판런락과 2, 3인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수한 선봉팀 선수들과 감독들을 주석단관람석에 부르시여 경기성적을 축하하시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워나갈 때

지난 23일 북과 남은 적십자실무회담을 열고 추석을 계기로 오는 9월에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에 진행된 상봉을 끝으로 하여 3년동안이나 진행되지 못하였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다시 진행되게 되는것은 수십년간 헤어져 생사조차 모르는 북과 남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은 물론 온 겨레의 가슴을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고있다. 더우기 이번 합의는 북과 남이 개성공업지구정착화를 합의한 이후 열흘도 안되어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향한 북남관계의 전진의 보폭을 더 크게 해준것으로 된다.

돌이켜보면 지난 기간 북

남관계가 완전과국상태에 처해있었던것은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모두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활짝 열리었던 북남사이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다시 가막히고 민족화해와 단합의 옥동자로 불리우던 금강산관광길이 끊어졌다. 북남경제협력사업이 종사하던 수많은 남조선기업들이 파산의 낭떠러지에서 헤매이고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사업마저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북과 남사이에는 불신과 대결의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감정만이 덧쌓

여졌다.

이번에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기 위한 북남당국실무회담이 무려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실은 지난 5년 남짓한 기간 쌓이고쌓였던 불신의 장벽이 얼마나 높고 차디찬던가에 대해 말해주는 생동한 실례로 된다.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두렵게 얼어붙은 불신의 장벽을 녹여내며 잠정해체되었던 개성공업지구정착화를 위한 합의가 이뤄진데 이어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한것은 퍼를 나눈 동족끼리 마음과 뜻을 합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물론 현재 북과 남사이에서 사상과 리념, 제도과 신앙의

차이를 포함하여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고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익에 철저히 서서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면 결코 북남사이에서 해결 못할 문제란 있을수 없다.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워나갈 때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능히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은 지난 6.15통일시대에 우리 겨레 모두가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에 부응하여 지난 28일에는 북과 남이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기 위한 실천적조

치로서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채택하였다.

북남사이에서 마련된 오늘의 소중한 성과들을 계속 공고히 하면서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 평화변영과 통일의 관개로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오늘날 우리 민족에게 나선 절실한 과업이다.

지금도 공화국은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북과 남이 통일이라는 민족사적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마음과 뜻을 합치고 힘을 합친다면 통일의 그날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리익에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가자!**

##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근 70년을 헤아리는 오랜 기간 분렬의 고통과 아픔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위업을 이룩하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돌이켜보면 장구한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투쟁해온 나날이기도 하다. 오늘날 조선민족의 피가 끓고 조선사람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 리념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사회적과제인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해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 가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리익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반세기 가 넘는 오랜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평화수호투쟁은 민족의 생존리익을 지키

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다. 온 민족이 반전평화수호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통일운동단체들과 동포들사이의 련대련합을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온 겨레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동일진정책동을 짓부시고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위한 련대투쟁, 공동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며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북남사이에서 개성공업지구정착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적십자실무회담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9월말에 금강산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게 된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기 위한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실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이룩한 이 소중한 성과를 두고 온 겨레는 기쁨을 금치 못하고있다.

북과 남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쳐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 길에서 얻은 소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살려 북남관계를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겨레의 투쟁은 반동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우여곡절을 겪을수도 있다.

그러나 함중도 못되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책동으로 인한 시련과 난관은 일시적인것이며 민족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소한 비판도, 좌절도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민족의 단합된 힘, 민족대단결로 반동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리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김형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온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철두철미 민족내부문제이며 우리 민족을 위한것인것만큼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도 마땅히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민족자주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는 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을 자주의 궤도를 따라 한치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구현을 열기 위한 대화구현에 들어섰다. 최근 북남당국이 제7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정착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한것은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 북남관계를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피 흘도 하나, 언어도 하나, 통일로 나가는 길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길이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며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구현하여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서로 마주앉아 통일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할 때 북남관계는 전진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도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정신이 살아있는 한 북남관계는 반드시 신뢰와 화합의 관계로 전진될것이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진시키는것은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이다. 민족의 힘을 믿고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는것이다. 통일을 절절히 념원하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치는 길을 앞세워나가는 길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길이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며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구현하여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서로 마주앉아 통일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할 때 북남관계는 전진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도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남조선야당에 대한 당국의 폭압소동

남조선의 《CBS》, 《KBS》, 《MBC》방송들에 의하면 정보원과 경찰이 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도한차례의 대대적인 폭압에 나섰다.

28일 정보원과 수원지방경찰청은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계자들, 경기동부원형 성원들에게 내란음모죄를 들춰내 그들의 집과 사무실들에 대한 수색소동에 열을 올렸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장을 비롯한 3명을 긴급체포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그들이 지난 5월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체제전복을 모의한 사실을 포착하였다고 하면서 이

번 사건을 지하혁명조직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추적수사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진보당은 당국이 전혀 맞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폭압을 가하는것은 《유신》독재체제의 선포나 다름없다고 규탄하였다.

통합진보당은 당국이 정보원의 선거개입근거장성이 드러나게 되자 《색갈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고 하면서 과거 독재자들처럼 총칼로 국민의 입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탈선도 없이 곧바로 전진시킬수 없게 하는 정신적자양분으로 되고있다.

우리 민족끼리를 근본적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겨올수 있는 밝은 전망이 펼쳐지게 되었다.

겨레는 지난온 6.15시대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갈 때 민족의 화해와 협력도 이루어지고 평화와 통일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실체함을 통해 감동깊게 새겨안았다.

오늘 북남관계는 수년간 지속된 불미스러운 대결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구현을 열기 위한 대화구현에 들어섰다. 최근 북남당국이 제7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정착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한것은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 북남관계를 더욱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피 흘도 하나, 언어도 하나, 통일로 나가는 길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길이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며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구현하여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서로 마주앉아 통일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할 때 북남관계는 전진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도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정신이 살아있는 한 북남관계는 반드시 신뢰와 화합의 관계로 전진될것이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 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진시키는것은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직 하나이다. 민족의 힘을 믿고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는것이다. 통일을 절절히 념원하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치는 길을 앞세워나가는 길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길이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며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구현하여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서로 마주앉아 통일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할 때 북남관계는 전진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도 이룩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남조선야당에 대한 당국의 폭압소동

남조선의 《CBS》, 《KBS》, 《MBC》방송들에 의하면 정보원과 경찰이 야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도한차례의 대대적인 폭압에 나섰다.

28일 정보원과 수원지방경찰청은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계자들, 경기동부원형 성원들에게 내란음모죄를 들춰내 그들의 집과 사무실들에 대한 수색소동에 열을 올렸다.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장을 비롯한 3명을 긴급체포하였다.

남조선당국은 그들이 지난 5월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체제전복을 모의한 사실을 포착하였다고 하면서 이

번 사건을 지하혁명조직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추적수사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진보당은 당국이 전혀 맞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폭압을 가하는것은 《유신》독재체제의 선포나 다름없다고 규탄하였다.

통합진보당은 당국이 정보원의 선거개입근거장성이 드러나게 되자 《색갈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고 하면서 과거 독재자들처럼 총칼로 국민의 입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횡포를 규탄

재미동포 인터넷신문 《민족통신》 편집위원이 22일 글을 발표하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제국주의횡포를 규탄하였다.

글은 8월 22일은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강압적으로 날조한 날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때로부터 한세기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은 과거 성노예안행을 부장하는 등 저들이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죄를 합리화하는 한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망언하고 제일동포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탄압광풍을 일으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은 1905년 일본과의

《라프트-가짜협정》을 통해 일본의 조선침략을 적극 부추긴 장본인이라고 까뻐했다.

이런 미국이 우리 민족을 물로 갈라놓고 1950년 6월 25일에는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켜 수백만명의 조선사람들을 학살하였다고 단죄하였다.

같은 전쟁이 끝난지 60년이 되었지만 미국이 아직도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지 않고 조선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외세에 의해 갖은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여온 조선민

족이 절절히 바라는 통일의 앞길을 아직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가로막으며 방해하고있다.

일본은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 온 겨레가 떨쳐일어나 미국이 조선반도에 대한 간섭과 지배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리행하고 북과 남이 서로 협력한다면 그것이 평화통일의 시작이고 우리 민족의 평화변영의 열쇠라는 것을 명심하고 통일에국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바라고있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외세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엄청난 도전이 부딪히고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

의 간섭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엄청난 위협이 조성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저들의 대조선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참화를 들이치는것도 서슴치 않으려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변함없는 본성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로 하여 참화를 당할것은 외세가 아니라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인 삼천리강토가 외세에 의해 참혹한 전쟁마당으로 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해야 할 당사자도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

결상태를 해소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침략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여기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이 있다.

온 겨레는 새 세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변영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조신반도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공화국의 선군정치는 외세가 몰아오는 전쟁의 참화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민족공동의 변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애국애족의 선군정치가 있고 조국통일의 대강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있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해내외 온 겨레는 침략과 전쟁을 막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변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말것이다.

임흥규

